

## 『얼굴, 사람과 역사를 기록하다』

배한철, 생각정거장, 2016

최재희\*

1997년에 영국을 처음 찾았을 때였다. 당시 일주일 단위로 공공기록 보존소(PRO)와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을 방문하면서 학위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복사하는 바쁜 일정을 보냈다. 지금은 멋진 독자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영국도서관은 대영박물관의 1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즈음 영국에서 교육학을 공부하던 대학 후배가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을 관람한 소감을 물었다. 원래 문화에 무지하고 별 관심도 없었고 시간도 부족했던 차에 바로 도서관 후문만 나서면 되는 옆의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 심성이 고왔던 그 후배는 이 취지의 대답에 갑자기 화를 내며 나의 무지한 행동을 ‘인류문명에 대한 야만적 테러’로 규정했다. 그리고 고난의 일주일이 시작되었다. 후배의 손에 이끌려 매일 아침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극장 등에 대한 순례가 이어졌다. 유물과 작품, 작가, 문예사조 등에 대한 부연설명이 폭풍우처럼 밀려왔다. 그렇지만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에서 고흐의 〈해바라기〉를 아무리 봐도 여전히 별다른 감흥을 느끼진 못했다. 어쩔 수 없는 태생적 한계로 스스로를 위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국립초상화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을 만나게 되었다.

---

\* 이화여대 기록관리교육원 특임교수.

먼저 각종 교과서와 역사 서적에서 보았던 친숙한 초상화들이 눈에 들어왔다. 조금 있으니 이름만 알고 있던 영국사에서 명멸했던 유명한 인물들이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두 번째 만남 이후 이들은 자신들은 물론 스스로와 관련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들과의 대화에서 처음 방문하는 영국에서의 생활, 특히 영어 스트레스를 느낄 필요도 없었다. 어떨 때는 자기들끼리 열띤 토론을 펼치다가 나에게 판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말 반갑고 흥미로웠던 만남이었다. 고난의 일주일 이후 자발적으로, 그것도 혼자 찾아가곤 했던 문화기관은 아마 이곳이 유일했을 것이다. 국립초상화미술관에 자리하고 있는 16세기 이후의 20만 명을 모두 만나지 못했지만, 이곳은 언제라도 달려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소중한 안식처로 마음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다.

『얼굴, 사람과 역사를 기록하다』는 책을 접하면서 불현듯 옛 생각이 떠올라 20년 전의 개인적인 경험을 두서없이 언급하게 되었다.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했고 경제지의 기자이지만 역사학도의 꿈을 잊지 않은 저자는 초상화를 통해 과거의 다양한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았던 시대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허구를 바로잡고 있다.

이 책은 모두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5장 ‘조선의 아웃사이더’와 6장 ‘화폭에 담긴 여인들’이 특히 흥미롭다. 국립초상화미술관에서 아쉬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전시 중인 초상화가 대부분 왕이나 정치인 등 지배층에 속한 유명 인물들만 보여준다는 점이었다. 과거 초상화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노동운동사를 전공했던 입장에서 아쉬운 심정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책은 부족하나마 노비와 중인 출신, 서얼 출신, 여진족 출신, 기생 등 사회적 마이너리티의 초상화와 그 의미를 소개하고 있다. 초상화라는 기록물은 부족하지

만 역사가의 입장에서 남은 기록물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저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구성이라 평하고 싶다.

초상화는 현대의 사진기록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수록된 초상화의 작자와 제목, 크기, 재질, 소장처와 같은 메타 정보도 제시되어 있다.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초상화 하나 하나에 대한 설명, 즉 기술(description)이 풍부하게 제공되어 있다는 점이다. 초상화의 주인공과 더불어 그의 가문과 친족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다른 기록이나 다른 초상화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부연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메타 정보가 부족하거나 너무 소략한 내용 설명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가기록원 소장 사진들과 비교된다. 국가기록원이 기증받거나 수집하는 민간기록물 중 사진기록이 많다. 그렇지만 이들 사진기록의 다수는 생산연도 등 관련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완전하다. 아카이브의 대표적 임무 가운데 하나가 기록물 기술이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저자는 암행어사를 한 적이 없는 박문수가 암행어사의 대표로 추앙받는 것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바라는 후대의 염원 때문이었다고 풀이한다. 그리고 많은 비리에 연루되었지만 대표적인 정승인 황희에게 청백리 이미지를 심어 부정한 공직자들이 본받도록 했다는 해석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도 매우 흥미롭다. 공공기관의 아키비스트가 반드시 역사적 해석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전거레코드 작성에는 어떤 형태이건 역사적 해석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전거레코드를 작성하지 않는 아카이브는 이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새마을운동과 같은 콘텐츠 주제를 선정해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만 하면 되니.

기록물 활용과 관련해, 이 책이 보여주는 절묘한 주제별 구성도 눈에 띈다. ‘임금의 장인, 만인지상의 권력을 지다’는 인현왕후의 아버지인 민유중의 초상화로 시작해 안동 김씨를 거쳐 명성황후에 이르기까지

외척세력의 비호를 주제로 구성되었다. 채제공의 초상화로 시작되는 ‘조선 최고의 재상은 사팔뜨기’는 삼국사기의 천연두 기록과 조선시대의 구인후, 오명항 등 천연두 자국이 그대로 초상화에 드러난 인물들과 왼쪽 눈을 잃은 장만의 ‘안대’ 초상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자기록 시대에 물리적 배치와 별개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제별 콘텐츠 구성에도 이 책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과 같은 시청각물은 전시 등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1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초상화의 비밀’ 전시나 2015년 ‘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 전시회가 인기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얼굴, 사람과 역사를 기록하다』는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편하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교양일 뿐 아니라 기록관리 전문가의 인식 지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